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16일(화)

포토에세이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간

-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 담긴 정책자료집 -
- 국민께 쓰는 따뜻한 편지 형식에 비공개 사진까지 130여 장 담겨 -
- 대통령실,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대학도서관 등 배포 예정 -

“여러분은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늘(7/16, 화)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지 형식의 따뜻한 문체와 생생한 사진으로 담은 포토에세이입니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총 18개 장(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책은 ‘첫 번째 편지, 민토를 시작하며’에서 창고 깊숙이 보관돼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의 먼지를 털어가며 민생토론회를 기획했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이어 전통 시장과 초등학교, 공장과 병원, 미국·UAE 순방 등 민생과 산업, 외교 현장 등에서 대통령이 느낀 소회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세 번째 편지, SUV에서 자는 청년’에서는 대선후보 시절 만난 27살 청년의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방값이 너무 올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SUV 차량에서 침낭을 깔고 잔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거 정책을 떠올렸고,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까지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 번째 편지에서 “청년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편지,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에서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의 소회부터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책에서 “70년 전 같은 자리에 섰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장 ‘열여덟 번째,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상’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 개혁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길을 헤쳐나가듯 위태로운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 전체 목차

1장.‘민토’를 시작하며 / 2장.어린이를 위한 나라 / 3장.SUV에서 자는 청년 / 4장.골든타임 / 5장.도약을 끌어내리는 모래주머니 / 6장.미래 성장의 다이아몬드 / 7장.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 8장.사우디 리야드에 칠해진 보랏빛 / 9장.시장에 물이 마르면 /10장.학생이 원하는 걸 배우는 학교 / 11장.제2 한강의 기적 / 12장.호주사막의 거미 ‘레드백’ / 13장.나의 스위트홈 / 14장.골드라인에서의 잊을 수 없는 기억 / 15장.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며 / 16장.보스턴 스퀘어 / 17장.아메리칸 파이 / 18장.‘용기있는 사람들 상’

또 각 장에는 행보를 기획하고 진행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정책 방향, 통계 등을 담은 '관련 이야기'와 함께, 총 130여 장의 생생한 사진도 실었습니다. 특히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 비공개 사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이겁니다.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정부가 영업사원도 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합니다” 등 각 정책을 대하며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포토에세이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해 전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기반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요 이미지

□ 표지 및 주요 페이지



첫 번째 편지

민토를 시작하며

여러분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월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도 '민토'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전국을 돌며 정부와 국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했습
니다. 노후 주택이나 청년정책 같은 주제를 두고 장관
이나 차관, 담당 공무원이 출동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
접 듣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전국을 도는 '국정상황
실',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식입
니다. 과거 정부는 청와대에서 부처별 업무를 보고받

고 지시하는 식이었는데 민생토론회에서는 국정 스
타일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생토론회의 슬로건은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
지 한다', '즉시 한다'입니다.
그동안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담당 공무원 만나
기가 힘들었죠? 민생토론회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장
차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대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TV 뉴스에서 민생토론회 보도를 할 때
대통령인 제가 말하는 장면만 보셨을 겁니다. 실제 민
생토론회에서는 국민과 장관, 담당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가 뜨거운 발언을 쏟아냅니다. 천국의 공무원

들은 KTV의 민생토론회 중계를 보면서 긴장한다고
합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현장 중심으로 국정을 운
영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 같은 파력을 수출전략회의에서 시작했
습니다.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
느냐'를 두고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과 한자리에서
토론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전략회의를
변치마졌던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고 일일이 챙기셨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창고 깊숙이 잠자고 있던 자료
를 찾아 먼지를 털어내며 읽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료와 기업
인, 외부부 담당자를 불러 수출 실적과 애로사항을 직
접 들었더군요.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내고 다음 회의
때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1981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1인
당 국민소득도 1000달러까지 끌어올리자!'
1973년 박 대통령이 내건 목표는 신기루 같았

습니다. 국제사회는 비웃었고 국내에서도 아무도 믿
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180회가 넘는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보다 4년이나 앞당긴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수출과 경제 도약만이 지금 같은 복합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로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4월까지 이어진 시즌1에서만 스
물네 차례 열렸습니다. 저는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두
차례 열어 세밀하게 점검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더 바빠졌고 공무원
들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뛰어다녀서일까요? 경제지표
도 파란불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자원도, 인력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기적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열정과 투지를 다시 불태운다면 위대한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역동적인 미래를 꿈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농1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
2024.3.21. 원주시 영문초등학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4.1. 용산 대통령실

관련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98년을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고, 의학판업으로 인해 오히려 정원이 줄어든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의사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 등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충원하려면 당장 5000여 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최소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의대 정원 증원이 하루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패키지에는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불안을 덜어줄 의료사고처리특별법안도 들어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헌신적인 의사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고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위해 10조 원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호소했다.



아침 식사 준비
대통령 윤석



대통령의 아침 식사



독거 어르신들 손들 잡고
2022.9.1. 종로구 창신2동

일곱 번째 편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원제춤, 아나 과연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답답해 했었죠.

저는 대선 후보 시절 식당에서 요리봉 하며 손님들 맞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백신 접종 완료율 인증해야 하는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두 분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뭘 하고 싶으세요?"

"식당에 손님이 북적거리는 활기찬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분들부터 도와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팬데믹 보상과 재기를 돕는 지원에 5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7월부터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별 게 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저는 이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는 밤낮없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회사를 나와 식당을 차린 사장님, 꽃가게를 차려 장미꽃을 파는 분, 시장에서 깻감을 파는 분 모두가 귀합니다. 그분들의 안정과 웃음이 나라의 경제를 든든히 만들고 미래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생활 규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TV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주민등록증을 위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형질정지 두 달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질정지 두 달이면 1년 장사 수익이 거의 날아가는 셈입니다. 하루가 버거운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일입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형질정지를 받더라도 두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줄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활 규제가 1160건이나 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한 규제는 바로 없어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란 말이 더 이상 유행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 편지

‘용기있는 사람들 상’

저는 3월 하나의 트로피를 받고 또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트로피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수여하는 ‘용기있는 사람들 상(獎)’이었습니다. JFK 재단은 정치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가, 세계를 위해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국내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공을 높이 평가해 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롤라인 케네디 명예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으면서 취임 후 어려웠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여덟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저는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두고불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으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열여덟은 빗장을 풀었고, 두 나라 정상은 서로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내했던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개혁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저는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미조직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귀족 노조는 부당한 고용 세습을 강요하고, 기득권을 대물림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파업에 불참한 동료의 차에 쇠구슬을 쏘아 유리를 박살 낸 끔찍한 모습을 기억하 실 겁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신속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고, 16일 만에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급물 요구와 공사 방해는 부실 공사를 불러왔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다닐 초등학교의 개교가 지연되고,

서민들이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히 조치해 물리쳤습니다.

노조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가능한 만큼, 처음으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였지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첫째 91.3%의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였고, 투명한 노조 활동과 함께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불길을 헤쳐나가듯 위태로운 길이지만, 한걸음 한걸음 쉬지 않고 걸어나가겠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 JFK 재단 명예회장으로부터 용기있는 사람들 상 트로피를 받으며
2024.3.27 용신 대통령실